광주 지역 인기 '와이파이존'은 도서관·정류장

'공공와이파이 관제센터' 개소…5월 접속 현황 보니

북구 광주중앙도서관 9232건 접속·사용량 1위
코로나 엔데믹 후 기념관 등 '실내' 상위권 올라

지난 5월 한달 동안 광주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공공 와이파이 존(WIFI ZONE)은 광주시 북구 광주중앙도서관 분관 최상준 도서관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공공와이파이 관제센터'를 열고 공공 와이파이의 속도가 4배 빨라진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지역 인기 '공공 와이파이 존(WIFI ZONE)'이 어딘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5월 한달간 광주시민들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트래픽 이용량 기준) 최상준도서관의 공공 와이파이 접속건수는 총 9232건에 달한다. 하루에 300명 정도가 이 도서관의 와이파이에 접속한 꼴이다. 총 이용 트래픽은 7455만 798MB(메가바이트)로 집계됐다.

이어 동구 산수무등파크 버스정류장(865만 4201MB), 서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540만 2979MB), 북구 신용복합공공도서관(475만 5730MB), 서구 쌍학공원(390만 866MB)과 광산구 천하근린공원(388만 1534MB), 광산구 광천동 칠성마을 방향 버스정류장(363만 3407MB), 광산구 광주그린카진흥원입구 버스정류장(318만 2251MB), 동구 광주산수도서관(279만 7440MB), 서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258만 4500MB)의 순으로 공공 와이파이 사용이 많았다. 이용량이 많은 시간대는 1위가 오전 10시, 2위가 오전 7시, 3위가 오전 8시로 나타났다.

엔데믹을 전후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 수 상위권 장소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코로나가 한참인 지난 2022년에는 공원과 관광지 등 실외 공간이 상위권에 오른 반면 올해는 도서관과 공공시설(기념관) 등 실내 공간이 상위권에 주로 머물렀다.

이는 사회적거리두기가 끝나고 대면활동이 많아지는 동시에 3밀(밀접·밀집·밀폐)에 대한 경각심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2년 공공 와이파이 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광산구 평동 산업단지 내에 있는 천하근린공원(2390만 127MB)이며 2위가 서구 청춘발산마을(442만 6574MB), 3위가 북구 운암 어린이공원(4203만 920MB), 4위가 남구 방림제1어린이공원(2766만 974MB), 5위가 광주시립무등도서관(1974만 944MB)으로 집계됐다.

천하근린공원의 경우 1만 3035㎡(3943평) 규모로, 인근에 캠핑카 등을 주차할 수 있고 학교와 대규모 공장 등이 형성돼 있어 코로나 당시 시민들의 이용량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2위를 차지한 청춘발산마을은 서구를 대표하는 테마마을로, 외지 관광객들의 필수코스로 꼽히는 곳이다. 이외 운암 어린이공원과 방림 제1어린이공원 역시 인근에 시장과 주택가, 학교 등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이 많다.

또 장소 이용 목적의 특성에 따라 접속자 수와 이용량이 비례하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등 잠시 머물렀다가 쉽게 자리를 뜨는 장소는 접속건 수는 높지만 와이파이 이용량이 적은 반면 기념관이나 도서관 등 오래 머무는 곳은 접속자 수에 비해 이용량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사용량 3위(540만MB)를 기록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의 공공 와이파이 접속은 781건에 그친데 비해 사용량 5위(390만MB)인 쌍학공원은 3만 722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전체 이용량 7위를 차지한 광산구 첨단도서관은 1305건인데 비해 8위인 광산구 응암근린공원은 첨단도서관의 21배(2만 8373건)가 넘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 와이파이 관제센터 개소와 더불어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공 와이파이 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 구축된 공공 와이파이망은 2943곳으로, 버스정류장과 공원,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에 설치돼 있다. /김다인 기자 kdi@

시원한 안개 나오는 정류장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돈 13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의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줄 쿨링 포그가 가동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보도육교 안전관리 부적정 9건 적발

자치구에 행정처분 요구

광주시는 "최근 한달간 관내 66개 보도육교에 대한 안전 감찰 결과 9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 1월 발생한 서울 도림보도육교 처짐 현상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시설물의 준공연도 등 노후도 및 위험성을 고려해 정밀 점검이 필요한 육교시설을 민간전문가(토목분야)와 함께 조사했다.

적발 사례는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을 받지 않거나 시설물 지정·고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어긴 경우였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다행히 안전상 심각한 결함은 없었다.

광주시는 부적정 사례와 관련해 관리·감독 부실 등 책임을 물어 관계 공무원들을 행정 처분할 것을 자치구 감사 부서에 요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성(性)공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광주 남구, 26일 초5~중학생 자녀 둔 학부모 성교육 강연

광주시 남구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학부모 성교육 특별강연이 열린다.

남구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들의 성 의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연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성(性)공하는 아이로 키우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오는 26일 남구 봉선동 청소년도서관 지하 1층 문화공연장에서 열린다.

강사로는 우선영 (사)푸른아우성 소속 성교육 전문가가 함께한다.

특강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강연을 통해 올바른 성 개념과 성교육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자녀의 몸과 마음의 성장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 디지털 성교육과 음란물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3일까지 남구 통합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50명에 한정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공원 공연시설 예약 온라인으로 하세요"

광주 북구, 본촌근린공원 등 6곳 이달부터 본격 운영

광주시 북구에 있는 6개 공원의 공연시설 예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북구는 공원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들이 문화공연,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 개최를 목적으로 공원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약현황을 전화로 확인하고, 신청서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앤 것이다.

북구는 주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공원시설 예약 현황을 조회하고 이용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지난달 말 구축·완료했다.

예약 가능 대상은 ▲본촌근린공원 ▲문화근린공원 ▲신용빛고을근린공원 ▲일곡제2근린공원 ▲영상강대상근린공원 ▲용흥어린이공원 등 공연장이 설치된 6개 공원이다.

예약시스템은 북구청 홈페이지 예약신청 서비스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북구는 관내 모든 공원의 위치, 면적, 시설 등 주요 정보와 공원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 일정을 함께 제공해 주민들의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들이 공원시설을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시스템 이용상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군산·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 서해지방해양경찰 시범 운영

서해지방해양경찰은 군산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서해 연안 관제망을 구축하기 위해 군산·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VTS는 각종 통신시설을 이용해 배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선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시설이다.

기존에는 군산항과 목포항, 진도구역에만 설치돼 있던 VTS 관제 범위를 군산 연안(4292㎢), 신안(3421㎢)까지 신설해 전체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